

번호: OP-I-001					
제 목	우리나라 손상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alence Rates and Risk Factors of Injury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이제숙1), 김순덕2), 이동기3), 이지성1) 1)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Jesuk Lee1), Soonduck2), Dongki Lee3), Jisung Lee1)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3)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분 야	역 학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이제숙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손상은 조기사망 및 장애로 인한 인력손실, 질병부담과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크지만 정부, 의료인 및 보건학 전문가들은 손상문제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손상과 연간손상의 유병률, 위험요인, 손상별 특성을 분석하여 손상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p> <p>방법: 본 연구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국민건강면접자료의 손상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평생손상'을 살아오면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손상, '연간손상'을 지난 1년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큰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방법은 Chi-squared test, Fisher's exact test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p> <p>결과: 평생손상의 유병률은 10%, 연간손상의 유병률은 1.3%였다. 평생손상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월가구소득, 현재흡연, 음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지역, 성별, 학력, 연령이 유의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대전 1.5배 높았고, 울산은 1.7배, 경기도는 1.4배, 강원도는 1.4배가 높았다.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2.2배 높았고, 연령은 9세이하에 비해 10-19세에서 1.7배, 20-29세는 2.8배, 30-39세는 3.7배, 40-49세는 3.5배, 50-59세는 3.7배, 60-69세는 4.3배, 70세이상에서는 4.8배 높았다. 학력은 대학원이상에 비해 무학에서 3.0배 높았고, 무학 국문해독은 3.0배, 초등학교는 2.5배, 중학교는 2.3배 높았다. 연간손상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월가구소득, 현재흡연, 음주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성별만이 유의하였고,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1.9배 높았다. 평생손상과 연간손상의 원인으로는 교통운수사고가 가장 많았고, 추락 미끄러짐사고 등의 순이었다. 손상장소는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가정 또는 주거인접지역, 직장 등의 순이었다. 평생손상과 연간손상의 손상유형은 좌상 표제성손상, 골절탈구, 뼈거나 인대늘어남 등의 순이었다. 평생손상에서 후유증은 22.6%이었다.</p> <p>결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고안전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손상원인별로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p>					